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점 중부 뉴저지
Eatontown



2호점 서부 뉴저지
Pittstown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RE/MAX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임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 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KWIK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윤은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에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검안과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사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514)
Edison, NJ 08817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준한의원

진료 안내

한외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굴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시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상당 교육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가고파여행사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201-3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사순제 4주일

2020년
3월 2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6, 1.6-7.10-13
화답송 시편 23(22), 1-3 7.3 14-4.5.6. (©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복음 요한 9, 1-41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전례 성가	입당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115번	512번, 342번	164번, 170번	117번
성체 분배	# 당분간 성체분배는 없습니다.			
안내 봉사	# 3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 4월: 순교자들의 모후 Pr.		친교 봉사	# 당분간 친교봉사는 없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 3/22: 백원선 안나		봉헌 봉사	# 3/22: 오경선 원선시오 오애희 율리아나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김정순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김진자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백종습(바오로)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율리아, 스테파노 가족
- 최기쁨, 밝음, 누리 - 최 율리아나
- 문형곤(예비자) - 한 빈첸시오 외 3명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516	\$281	\$797
OLM	\$1,759	\$707	\$2,466
합계	\$2,275	\$988	\$3,263

미사 참석: 66명

교무금 안내

오경선(3-4)	손홍구(1-3)	김영필 (3-4)	
이창우(3)	오용운(1-3)		합계 \$1,340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이며 목표액의 26% 달성하였습니다.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입장권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신청마감 3월까지)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십자가의 길, 3/22 사순특강, 3/29 새신자 1일 피정, 4/1 사순 판공, 4/4-4/5 Rosary Altar Society Bake Sale, 4/23-4/26 미 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관련 교구 지침

공동 미사의 잠정적 중단

- 메타천 교구의 모든 공동체의 미사는 3월 18일 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4월 3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과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사가 중단 되더라도 신부님들의 사적인 미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주교자 대성당에 아침 7시에 거행됩니다. 또한 이 미사는 성당 웹사이트(www.stfranciscathedral.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성체 성사는 신앙인의 삶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메타천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맞겨진 모든 신앙의 삶과 이 힘든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선한 지향들을 사적인 미사 안에서 기억하며 거행해야 합니다. 사제들은 다른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혼자서라도 미사를 거행 해야 합니다. 신부님들은 신자 여러분들이 봉헌한 미사 지향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고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잠정적 중단

- 고해 성사는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거행하지만, 공공의 고해 성사 거행은 없어야 합니다. 사제는 고해 성사를 거행 할 시, 바이러스 전염 방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자 성사

- 병자 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제가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다른 헬스케어 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사제는 그 기관의 위생관리 기준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며, 마스크와, 옷, 그리고 장갑과 또는 안경등을 착용하고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 집에서 병자 성사를 거행 할 경우 사제들은 합당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합당한 감염 방지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 (사순 제4주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 9,6-7)

1. 한 말씀만으로도 죽은 이를 살리시던 예수님이 이번엔 왜 수고롭게 손을 쓰시며 소경을 고쳐 주셨을까요? 7성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눈을 뜬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보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 익숙해져있었던 탓인지, 눈앞에 있는 진리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와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 진흙을 개시는 예수님 모습은 창세기 어떤 장면과 닮았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창세기 장면과 연관하여 이 행위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